

## Ⅱ . 金融 · 經濟動向

### 1. 海外經濟

#### 가. 經濟成長

〈표 Ⅱ-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sup>1)</sup>

	2001	2002	2003	2004 <sup>2)</sup>
전 세계	2.4	3.0	3.9	4.6
선진국	1.1	1.7	2.1	3.5
미국	0.8	1.9	3.0	4.6
일본	0.4	-0.3	2.5	3.4
유로지역 (독일)	1.6	0.9	0.5	1.7
아시아신흥시장국 <sup>2)</sup>	0.8	0.2	-0.1	1.6
개발도상국	1.1	5.1	3.0	5.3
아시아 (중국)	4.1	4.6	6.1	6.0
중남미	5.6	6.4	7.8	7.4
세계교역신장률	7.3	8.0	9.1	8.5
0.4	-0.1	1.7	3.9	
0.1	3.1	4.5	6.8	

주 : 1) IMF 통계기준(2004년은 전망치),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기준

2)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4

2004년 상반기중 세계경제는 이라크 상황의 혼미 등 지정학적 위험 지속과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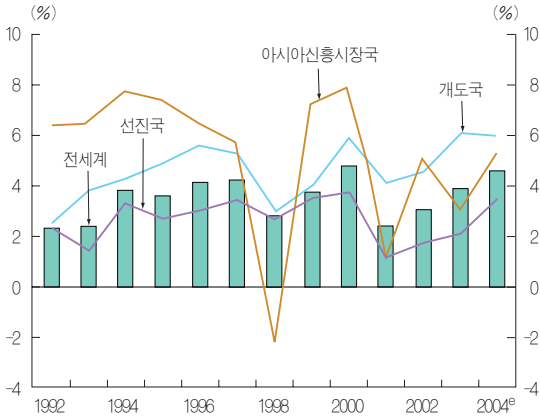
미국경제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완화기조 지속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회복국면에 접어든 이래 2004년 들어서도 뚜렷한 확장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었으며 고용사정 개선과 함께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주택경기도 호조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9%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경기가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美연준은 6월 30일 정책금리인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종전의 1.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sup>1)</sup>한 후 8월 10일 1.5%로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하였다.

일본경제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지난해에 이어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을 견인하였으며 그 동안 부진하였던 민간소비도 고용사정 및 소비심리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GDP 성장률은

1) 美연준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며(6.5% → 1.0%), 2004년 6월의 금리인상은 2000년 5월 이후 4년여만에 처음이다.

〈그림 II-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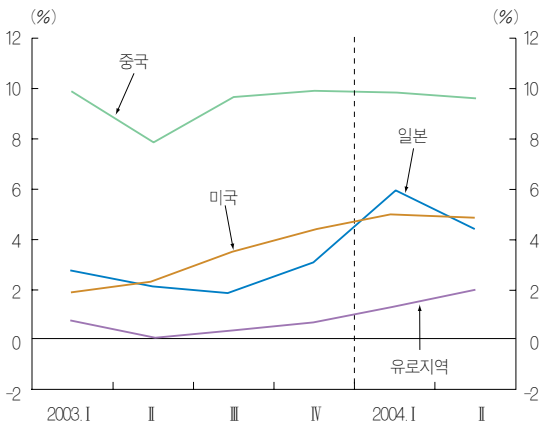
5.2%로 높아졌다. 한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는 미약하나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었다.

중국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가 활황을 보인 가운데 수출도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여 상반기중 GDP 성장률은 9.7%에 달하였다. 다만 중국정부가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일련의 긴축정책을 시행<sup>2)</sup>함에 따라 점차 투자과열이 진정되고 산업생산 증가세도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타 아시아지역 경제도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이후의 회복세가 지속되었는데 특히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림 II-2〉

주요 지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유로지역 경제는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1/4분기에는 독일의 소비 및 투자부진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수출호조와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2/4분기에는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GDP 성장률은 1.7%를 나타내었다.

## 나. 國際金融市場

2004년 들어 국제금융시장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반영하는 가운데서도 중동지역 정세, 국제유가 움직임, 주요국의 정책기조 변경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재할인율(3.25일) 및 지급준비율 인상(4.25일),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4.28일), 과열 산업에 대한 대출중지 명령(4.30일), 외자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7.1일) 등이다.

〈표 II-2〉

주요국의 장단기금리 추이  
(월말 기준)

		(연%)				
		2002. 12	2003. 12	2004. 3	6	8
장기금리 <sup>1)</sup>						
미 국		3.81	4.25	3.84	4.58	4.12
일 본		0.91	1.37	1.45	1.79	1.54
유로지역		4.20	4.29	3.92	4.32	4.02
단기금리 <sup>2)</sup>						
미 국		1.19	0.92	0.94	1.26	1.58
일 본		0.00	0.00	0.01	0.01	0.01
유로지역		2.87	2.12	1.96	2.12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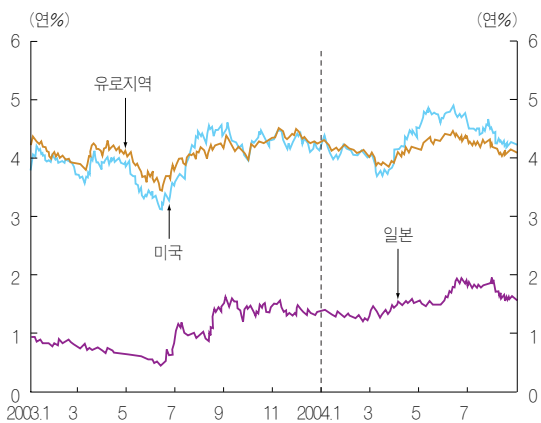
주 : 1) 10년만기 국채수익률 기준  
 2) 3개월만기 재정증권수익률 기준, 단 유로지역은 3개월만기 EURIBOR 기준  
 자료 : Bloomberg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1/4분기 중 美연준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대, 아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확충에 따른 美국채 매입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나타내었다. 2/4분기 들어서는 경기 상승세 확대, 고용사정 개선,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과 함께 美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이 확산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 중순 이후에는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美연준의 향후 금리정책도 점진적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 8월말 현재 전년말대비 0.13% 포인트 하락한 4.12%를 기록하였다.

일본 장기금리(10년만기 국채 수익률)는 2월까지 미미한 하락세를 보인 이후 경기회복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면서 오름세를 유지하였다. 6월 중순 이후에는 2/4분기 GDP성장률 둔화 예상 및 미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우려에 기인한 수출 감소 전망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로는 전년말대비 0.17% 포인트 상승한 1.54%를 기록하였다.

〈그림 II-3〉

주요국의 장기금리<sup>1)</su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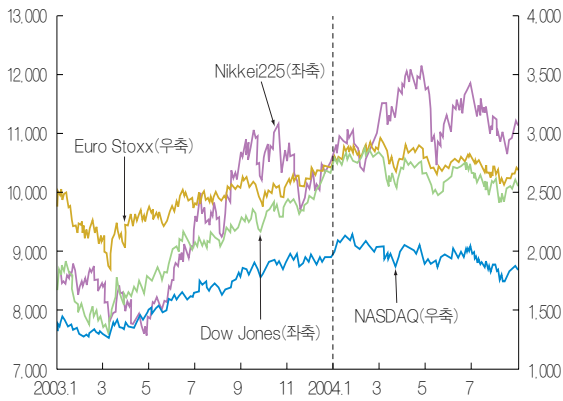
주 : 1) 각국 10년만기 국채수익률 기준  
 자료 : Bloomberg

유로지역 금리는 1/4분기중에는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화 강제 전망을 배경으로 유로채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2/4분기 들어서는 세계경제의 뚜렷한 회복을 배경으로 상승하였으나 6월 중순 이래 다시 하락하는 등 미국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주요국의 주가를 살펴보면 미국주가는 연초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의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3월 이후 테러위험 증대, 국제유가 상승, 美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그림 II-4〉

주요국의 주가지수<sup>1)</sup> 추이



주 : 1) 현지시장 증가 기준  
자료 : Bloomberg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7월 이후 주요 IT업체의 실적 악화 및 고유가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어 8월말 현재 Dow Jones 산업평균지수는 전년말대비 2.7%, NASDAQ 지수는 8.3% 하락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일본주가는 경기회복, 기업실적 호전 등으로 연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Nikkei 지수가 4월 26일 2001년 8월 이후 최고수준인 12,164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강화, 고유가 지속,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에 따른 개혁정책 후퇴우려로 반락하였는데 8월말 현재 Nikke이지수는 전년말대비 3.8% 상승한 11,082를 기록하였다. 한편 유로지역 주가는 대체로 미국주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Euro Stoxx지수가 8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3.3% 하락하였다.

〈그림 II-5〉

주요 환율<sup>1)</sup> 추이



주 : 1) 달러/유로는 뉴욕시장, 엔/달러는 동경시장 증가 기준  
자료 : Bloomberg

상반기중 美달러화의 환율동향을 보면 엔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였다. 2월 중순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던 엔/달러 환율은 IMF 총재의 일본은행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타당성 인정 발언<sup>3)</sup> 등을 계기로 급등한 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3월말 결산 법인의 달러매도 증가 등으로 다시 급락하였다. 이후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자산 매입 확대, 일본에 대한 테러 위협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5월 중순 이후에는 일본경제의 호조 지속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7월 들어 일본의 소매판매 및 산업활동 부진, 對日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다시 상승하여 8월말 현재 109.8엔을 기록하였다. 엔화를 기준으로 보면 엔화는 美달러화에 대하여 전년말 대비 2.6%

3) IMF 켈러 총재는 2월 25일 일본방문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의 시장개입은) 실용적인 것이며 금융시장 안정과 디플레이션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하되었다.

美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연초부터 약세를 보이며 등락하는 가운데 달러/유로 환율이 2월 17일 사상 최고수준인 1.28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미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른 美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 등으로 강세로 반전하였다. 美달러화는 5월 중순 이후 유로지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 美본토에 대한 테러가능성 등으로 다시 소폭의 약세로 돌아서 8월말 현재 유로당 1.22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유로화를 기준으로 보면 美달러화에 대하여 전년말 대비 3.1% 절하된 수준이다.

### 다. 國際原資材價格

국제유가는 2004년 들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중동지역의 긴장과 함께 테러위험이 확산된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세 확대에 의한 석유 수요 증가, OPEC의 생산쿼터 감산 결정(2.10일) 등으로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6월 들어서는 OPEC의 생산쿼터 증산합의<sup>4)</sup> 등으로 일시 반락하였으나 7월 이후 세계경제의 확장세 지속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러시아 석유회사인 Yukos社의 파산우려, OPEC의 증산여력한계 등 공급차질 요인으로 급등하여 8월 20일 사상최고치인 배럴당 45.46달러(Brent油 기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라크 정정 불안 완화 기대, OPEC 및 러시아의 증산의사 표명 등으로 반락하여 8월말 현재로는 전년말 대비 9.5달러 상승한 39.80달러를 나타내었다.

〈그림 II-6〉

원자재가격<sup>1)</sup> 추이



주 : 1) 국제유가는 Brent油 기준  
자료 : Reuters

4) OPEC은 6월 3일 베이루트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1일 생산쿼터를 7월 1일부터 200만 배럴 증산한 2,550만 배럴로, 8월 1일부터는 추가로 50만 배럴 증산한 2,600만 배럴로 늘릴 것을 합의하였다.

원유를 제외한 국제원자재가격은 연초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중국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정책 등에 따른 수요 둔화 전망,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기인한 투기매수세 위축, 기상여건 호전에 따른 곡물류 수확량 증대 전망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전년말 대비 7.6% 하락하였다.

〈표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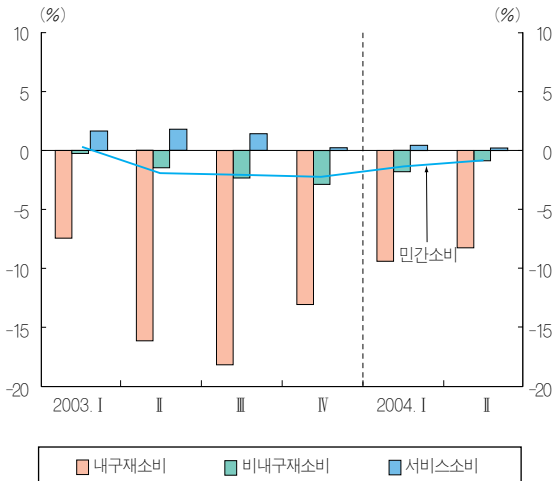
주요 경제성장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2002	2003p				2004p			
		연중	상반	하반	Ⅲ	Ⅳ	상반	I	Ⅱ
GDP	7.0	3.1	2.9	3.2	2.4 (1.6)	3.9 (2.7)	5.4	5.3 (0.7)	5.5 (0.6)
GNI	7.0	1.8	1.0	2.6	2.1	3.0	4.5	4.5	4.5

주 : ( )내는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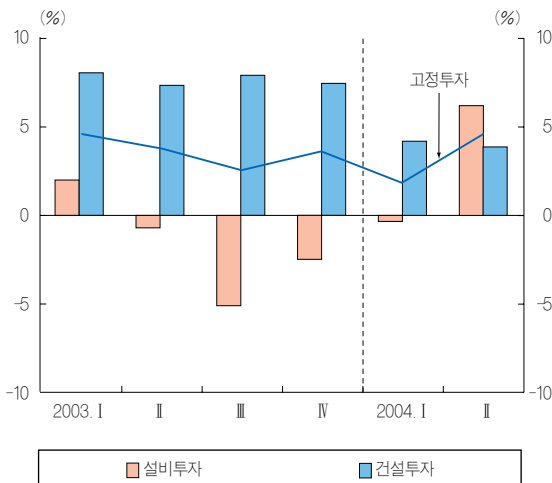
〈그림 II-7〉

주요 소비지표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그림 II-8〉

주요 투자지표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2. 實物經濟

### 가. 經濟成長

2004년 상반기중 국내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 확대에 수출이 큰 폭의 신장세를 지속한 데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의 3.2%에서 5.4%로 높아졌다. 그러나 전기대비 성장률(계절조정 기준)로 보면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4/4분기의 2.7%에서 2004년 1/4분기 0.7%, 2/4분기 0.6%로 낮아지는 등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GDP 성장률보다 낮은 4.5%를 기록하였다.

#### (需要動向)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전년에 이어 부진하였으며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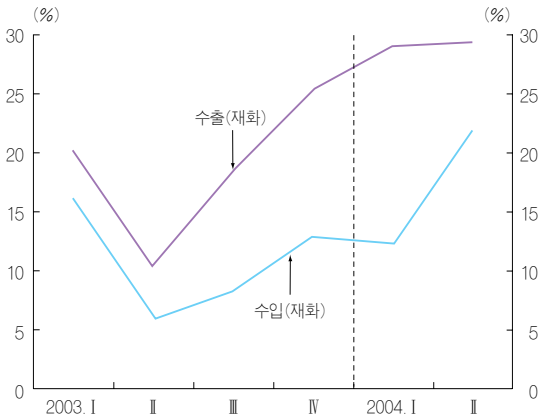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가계의 소득 증가세 둔화와 부채조정 등에 따른 소비여력 저하로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였다. 형태별로는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에 대한 지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서비스 지출도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IT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투자 유발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내수부진 등에 기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상반기중 3.0% 증가에 그쳤다.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비주거용 건물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데다 철도, 전력시설 등 토목건설에 대한 투자도 부진하여 상반기중 증가율이 전년동기의 7.6%에서 3.9%로 낮아졌다.



〈그림 II-9〉

수출입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물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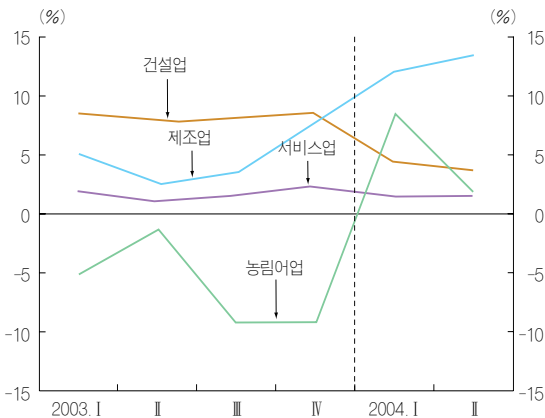
수출(재화)은 중국의 높은 성장세 지속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중 29.4%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수입(재화)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정밀기기, 산업용기계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반기중 증가세가 전년동기의 11.0%에서 17.3%로 확대되었다.

(生産動向)

제조업과 농림업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건설업의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서비스업은 내수부진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10〉

주요 산업별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제조업의 경우 경공업(섬유·의복, 인쇄·출판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휴대전화, 산업용기계 등 중화학공업 생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1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농림어업은 상반기중 어획량 감소로 어업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업과 광우병 파동 이후 한우 선호에 따른 축산업 생산의 호조로 전년동기의 2.4% 감소에서 3.6% 증가로 반전되었다.

서비스업은 통신·운수업이 고속인터넷 이용 확대와 수출 물동량 증가 등으로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소비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5%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꾸준히 늘어났으나 토목건설의 감소로 4.0% 증가에 그쳤으며 전기가스수도업은 발전용 가스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5.9%)를 나타내었다.



〈표 II-4〉

주요 고용관련지표 추이

(만명, %)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상반	I	II	7
경제활동인구	2,292	2,275	2,309	2,326	2,298	2,353	2,356
(증가율) <sup>1)</sup>	0.2	0.1	0.2	2.2	2.4	2.1	1.4
경제활동참가율	61.4	61.1	61.7	61.8	61.2	62.5	62.4
취업자수	2,214	2,197	2,231	2,242	2,210	2,274	2,275
(증가율) <sup>1)</sup>	-0.1	0.0	-0.3	2.1	2.2	2.0	1.3
실업자수	78	78	78	83	88	79	81
실업률	3.4	3.4	3.4	3.6	3.8	3.3	3.5
(계절조정)	-	3.3	3.5	3.4	3.4	3.5	3.6

주 : 1)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나. 雇傭·賃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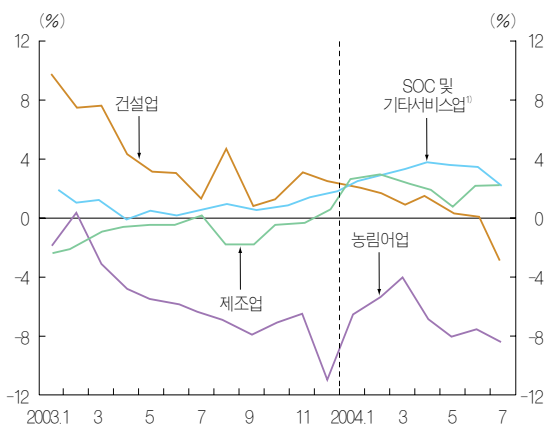
2004년 들어 고용사정은 수출의 급신장에 따른 생산활동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중 명목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당폭 둔화되었다.

(雇傭動向)

2004년 들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취업자수도 늘어났으나 실업자수도 노동시장으로의 신규 유입인구 증가규모가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상회함에 따라 지난해 1~7월 평균 78만명에서 2004년 같은 기간중 평균 8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7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해의 3.4%에서 3.5%로 높아졌으며 분기별 실업률(계절조정)도 2004년 들어 1/4분기 3.4%, 2/4분기 3.5%, 그리고 7월에는 3.6%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II-11〉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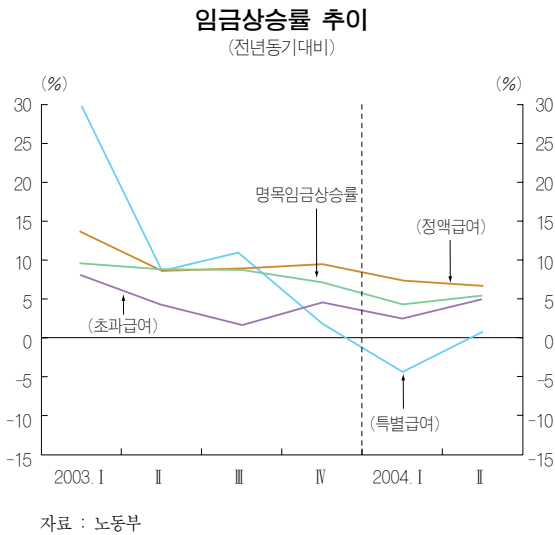
주 : 1) 건설업 제외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을 산업별로 보면 이농에 따른 농림어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제조업이 전자·기계업종을 중심으로 증가로 돌아서고 서비스업도 사업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한편 건설업 취업자수는 2004년 들어서도 증가세 둔화가 계속 이어지다가 7월중에는 3.1% 감소로 전환되었다.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소폭 증가에 그쳐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해 1~7월중 49.8%에서 금년 같은 기간중 49.3%로 다소 낮아졌다.

한편 취업시간관련지표를 보면 주당평균취업시간은 금년 1~7월중 48.6시간으로 전년동기의

〈그림 II-12〉



49.5시간보다 감소하였고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수는 금년 1~7월중 평균 73만명으로 전년 동기의 평균 62만명보다 증가하였다.

**(賃金動向)**

2004년 상반기중 전산업 명목임금(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4.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조정한 실질임금 상승률도 지난해 상반기중의 7.2%에서 1.4%로 떨어졌다.

내역별로는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가 각각 7.0%, 3.6% 상승한 가운데 특별급여는 2003년 초 성과급이 높게 지급된 데 따른 반사효과로 2.6% 감소하였다.

〈표 II-5〉

**국제수지 요약표**

(억달러)

	2003p			2004p	
	연중	상반	하반	상반	7
경 상 수 지	123.2	9.0	114.2	131.8	32.3
상 품 수 지	221.6	70.0	151.7	190.2	41.5
(수 출)	1,976.4	910.6	1,065.8	1,248.8	221.7
(수 입)	1,754.8	840.6	914.2	1,058.6	180.2
서 비 스 수 지	-76.1	-39.7	-36.4	-33.9	-7.7
(수 입)	327.0	151.7	175.4	193.6	33.0
(지 급)	403.1	191.4	211.8	227.4	40.7
소 득 수 지	6.0	-7.9	13.8	-9.4	0.1
경상이전수지	-28.2	-13.4	-14.8	-15.1	-1.6
자 본 수 지	131.3	44.9	86.4	-5.8	-11.8
투 자 수 지	145.3	52.0	93.4	2.9	-10.4
직 접 투 자	-2.1	-6.3	4.2	16.9	-5.8
증 권 투 자	179.6	26.8	152.8	96.4	16.2
기 타 투 자	-32.2	31.4	-63.6	-110.4	-20.8
기타자본수지	-14.0	-7.0	-7.0	-8.7	-1.4
준비자산증(-)감	-258.5	-66.5	-192.1	-127.5	-15.4
오차 및 누락	4.0	12.5	-8.5	1.5	-5.1

**다. 對外去來**

2004년 1~7월중 경상수지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164.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본수지는 17.7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대외준비자산은 142.9억달러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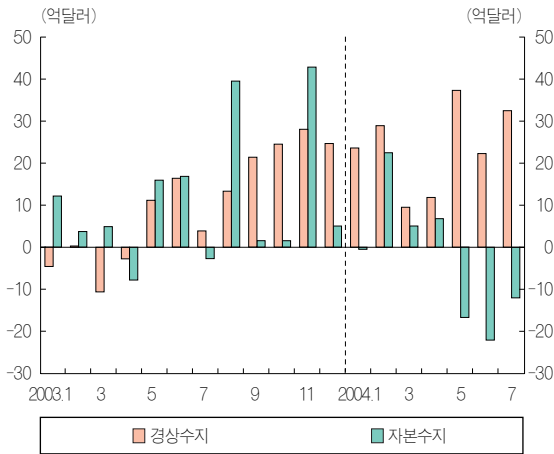
**(經常收支)**

1~7월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전년동기의 12.5억달러에서 164.1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의 84.6억달러에서 231.7억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서비스수지는 운수 수입 및 기타서비스 수입 증가로 적자규모가 전년동기의 50.0억달러에서 41.6억달러로 소폭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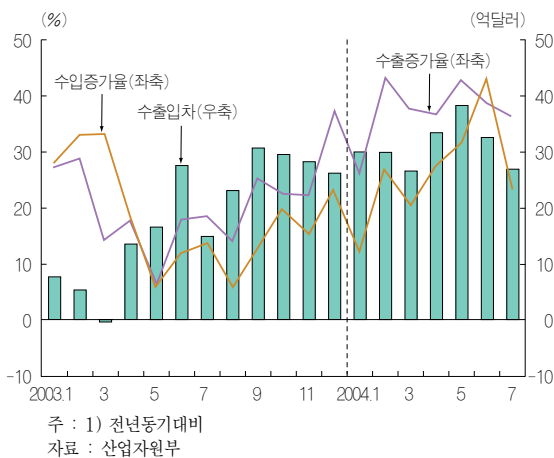
〈그림 II-13〉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추이



〈그림 II-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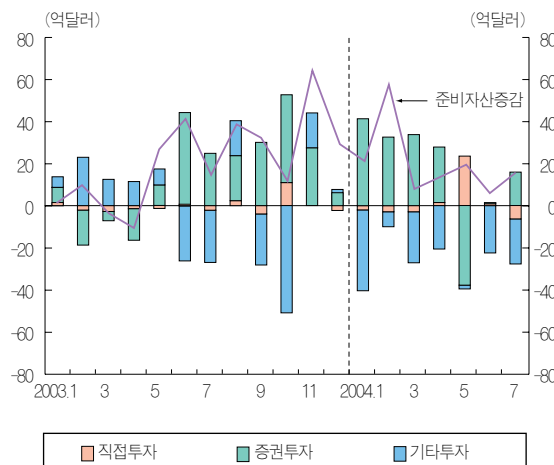
수출입증가율<sup>1)</sup> 및 수출입차 추이  
(통관기준)



주 : 1) 전년동기대비  
자료 : 산업자원부

〈그림 II-15〉

항목별 자본수지 추이



소득수지는 대외 배당금 및 이자지급 증가로 적자규모가 9.2억달러로 확대되었으며 경상이전수지도 내국인의 해외송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규모가 16.7억달러로 확대되었다.

1~7월중 수출(통관기준)은 중국의 고성장 지속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1,045.2억달러)에 비해 38.0% 늘어난 1,442.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입(통관기준)은 1,263.7억달러로 전년동기(1,008.3억달러)보다 25.3%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소비위축으로 소비재 수입이 둔화되었으나 수출증가에 따라 부품 및 기계류 등의 자본재 수입이 확대되었고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액도 크게 늘어났다.

(資本收支)

1~7월중 자본수지는 전년동기의 42.1억달러 흑자에서 17.7억달러 적자로 반전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직접투자수지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의 8.3억달러 적자에서 11.1억달러 흑자로 반전되었다. 증권투자수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수입 증가 등으로 흑자폭이 전년동기의 52.1억달러에서 112.5억달러로 확대되었다. 기타투자수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지점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의 6.8억달러 흑자에서 131.2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됨에 따라 자본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 3. 物價

〈표 II-6〉

소비자물가 등락률<sup>1)</sup> 추이  
(전기말월대비)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I	II	7	8
소비자물가	3.4 (3.6)	1.8 (3.8)	1.6 (3.3)	2.1 (3.3)	-0.1 (3.3)	0.6 (4.4)	0.9 (4.8)
농축수산물	8.9 (5.9)	0.4 (4.4)	8.5 (7.3)	6.6 (8.6)	-3.3 (10.7)	2.2 (14.1)	5.3 (16.3)
공업제품	1.4 (2.3)	0.6 (3.5)	0.8 (1.2)	1.2 (1.1)	0.5 (2.2)	0.2 (3.2)	0.5 (3.6)
(석유제품)	4.3 (6.0)	-0.2 (9.1)	4.5 (3.0)	4.5 (3.2)	1.0 (8.3)	1.4 (11.1)	2.1 (13.5)
서비스	3.5 (3.6)	2.7 (3.7)	0.8 (3.8)	1.7 (3.4)	0.2 (2.7)	0.5 (3.0)	0.1 (3.0)
(집세)	2.8 (3.5)	1.7 (4.1)	1.1 (3.1)	0.3 (2.6)	0.3 (1.8)	0.1 (1.5)	0.0 (1.3)
(공공요금)	2.0 (2.5)	2.6 (2.1)	-0.6 (2.8)	1.8 (2.2)	-0.2 (1.0)	1.0 (2.1)	0.2 (2.6)
(개인서비스)	4.7 (4.5)	3.3 (4.3)	1.3 (4.6)	2.3 (4.4)	0.5 (4.2)	0.4 (4.3)	0.0 (4.1)
생활물가	4.2 (4.1)	2.1 (4.0)	2.1 (4.1)	3.3 (4.1)	-0.4 (4.6)	0.9 (5.8)	1.5 (6.7)
근원인플레이션	2.8 (3.1)	2.0 (3.2)	0.7 (3.0)	1.5 (2.8)	0.4 (2.7)	0.3 (3.1)	0.3 (3.2)

주 : 1) 7, 8월은 전월대비, ( )내는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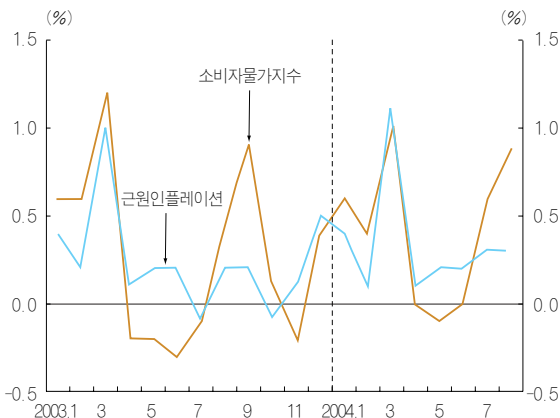
#### (消費者物價)

2004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8월중 전년말월대비 2.8%,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중에는 작황부진과 광우병, 조류독감 등에 따른 돼지고기 등 대체육류 가격의 급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도시가스, 등록금·학원비 등 서비스요금 인상도 가세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2/4분기 들어서는 계절채소 출하증가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서비스요금이 하락한 데다 수입관세 인하 등으로 석유제품가격 오름세도 둔화되면서 소폭 하락하였다. 7~8월에는 장마, 폭염으로 농축수산물가격이 크게 오르고 버스, 전철 등 공공서비스요금 인상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림 II-16〉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 등락률 추이  
(전월대비)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체감물가는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1~8월중 전년말월대비 2.5%,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하였다.

<표 II-7>

생산자물가 등락률<sup>1)</sup> 추이  
(전기말월대비)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I	II	7	8
생산자물가	3.1 (2.2)	0.7 (2.1)	2.4 (2.2)	3.6 (4.2)	0.7 (6.2)	0.4 (7.0)	0.9 (7.5)
상 품	3.2 (2.0)	0.4 (2.1)	2.7 (2.0)	4.7 (4.8)	0.9 (7.7)	0.3 (8.7)	1.2 (9.5)
(농림수산물)	12.1 (5.7)	-1.2 (1.6)	13.5 (9.9)	10.8 (18.1)	-5.6 (18.5)	3.6 (20.0)	3.7 (20.4)
(공 산 품)	2.7 (1.8)	0.5 (2.1)	2.2 (1.3)	4.4 (3.9)	1.6 (7.4)	0.1 (8.5)	0.9 (9.1)
서 비 스	2.9 (2.3)	1.3 (2.1)	1.5 (2.5)	1.2 (3.1)	-0.1 (2.9)	0.5 (3.0)	0.4 (3.2)

주 : 1) 7, 8월은 전월대비, ( )내는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표 II-8>

가공단계별물가 등락률<sup>1)</sup> 추이  
(전기말월대비)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상반	I	II	7
총 지 수	4.1 (1.9)	0.2 (1.7)	3.9 (2.4)	5.5 (6.7)	4.2 (4.7)	1.2 (8.7)	0.7 (10.3)
원 재 료	9.1 (6.4)	-0.5 (7.3)	9.6 (5.5)	13.0 (15.8)	8.7 (7.6)	4.0 (24.6)	3.6 (26.4)
중 간 재	4.9 (2.2)	0.9 (1.7)	3.9 (2.7)	6.9 (7.8)	5.0 (5.9)	1.8 (9.7)	0.3 (11.4)
최 종 재	1.7 (0.7)	-0.5 (0.6)	2.2 (0.8)	1.4 (2.8)	2.0 (2.3)	-0.6 (3.3)	0.5 (4.4)

주 : 1) 7월은 전월대비, ( )내는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표 II-9>

수출입물가 등락률<sup>1)</sup> 추이  
(전기말월대비)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상반	I	II	7
수 출 물 가	3.3 (-2.2)	-1.4 (-4.2)	4.7 (-0.1)	2.4 (4.4)	1.1 (2.6)	1.3 (6.4)	1.4 (9.2)
계약통화기준	2.9 (1.3)	-1.1 (1.4)	4.0 (1.2)	5.9 (6.7)	3.5 (3.6)	2.3 (10.0)	1.3 (10.8)
원 화 기 준	6.5 (1.8)	-0.5 (0.9)	7.0 (2.7)	5.1 (8.2)	3.1 (4.8)	1.9 (11.7)	1.6 (14.3)
(원자재)	6.8 (2.5)	-0.8 (2.0)	7.7 (3.1)	6.7 (9.6)	4.2 (5.2)	2.4 (14.2)	2.0 (16.7)
수 입 물 가	4.3 (-1.8)	0.5 (-3.9)	3.8 (0.5)	-3.5 (1.0)	-2.6 (2.6)	-1.0 (-0.6)	0.0 (1.6)
(자본재)	6.3 (-0.6)	1.3 (-3.3)	5.0 (2.3)	1.1 (4.2)	0.6 (3.1)	0.4 (5.3)	0.0 (7.4)
(소비재)	5.5 (5.0)	-0.1 (6.3)	5.6 (3.8)	8.5 (9.9)	5.6 (5.4)	2.7 (14.7)	1.7 (15.1)
계약통화기준	4.9 (2.7)	7.3 (4.0)	2.6 (3.4)	3.4 (2.7)	2.7 (4.0)	1.9 (1.9)	

주 : 1) 7월은 전월대비, ( )내는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2) 대미달러환율(기간평균, 종가기준)의 전년동기대비 절상(+), 절하(-)율

(生産者物價)

생산자물가는 1~8월중 전년말월대비 5.6%, 전년동기대비 5.6% 상승하여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중에는 한파, 폭설에다 조류독감, 광우병에 따른 대체육류가격 급등까지 겹쳐 농림수산물 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고 원유·비철금속·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산품가격도 올라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4분기중에는 채소류의 출하 증가로 농림수산물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공산품가격도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7~8월에는 출하물량감소로 농림수산물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서비스요금도 운수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가공단계별 물가는 원재료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큰 폭 오르고 중간재도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 1~7월중 전년말월대비 6.2%, 전년동기대비 7.2% 상승하였다.

(輸出入物價)

1~7월중 수출물가는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말월대비 7.2% 상승하였으나 원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기준 상승률은 이보다 낮은 3.8%를 기록하였다.

수입물가는 1~7월중 계약통화기준으로 10.2%, 원화기준으로 6.7% 각각 상승하였다. 특히 원유 등의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가격이 8.7% 상승하였고 소비재가격도 1.1% 올랐으나 자본재가격은 3.5% 하락하였다.

〈표 II-10〉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등락률 추이  
(전년말월대비)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상반	I	II	7
주 택 매 매	5.7	4.4	1.2	-0.1	0.0	-0.1	-0.3
아 파 트	9.6	6.1	3.3	1.0	0.6	0.4	-0.2
서 울	10.2	4.6	5.3	1.6	1.0	0.6	-0.4
(강 남)	14.3	6.3	7.5	2.0	1.2	0.8	-0.4
대 전	28.4	18.4	8.5	4.0	1.7	2.3	0.2
주 택 전 세	-1.4	0.7	-2.1	-0.9	0.1	-1.0	-0.8
아 파 트	-0.3	0.8	-1.1	0.5	0.9	-0.4	-0.6
서 울	-3.2	-1.2	-2.1	-0.3	0.8	-1.1	-0.7
토 지	3.4	0.9	2.5	2.5	1.4	1.1	..

자료: 건설교통부, 국민은행

(不動産價格)

1~7월중 주택매매가격은 단독 및 연립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아파트가격 상승폭도 크게 둔화되어 전년말월 대비 0.4% 하락하였다. 아파트가격은 2월 이후 이사철, 대규모 재건축단지 착공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으나 5월 들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조기시행 논의 등으로 가격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데 이어 6월 이후에는 소폭 하락으로 반전하였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대전·충청권의 아파트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전세가격은 2~4월중 신학기 이사수요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5월 이후 신규 입주 아파트 증가 등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로 반전하여 1~7월중 전년말월 대비 1.7% 하락하였다.

한편 토지가격은 신도시 개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및 충청지역 등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 4. 金融市場

### 가. 價格指標

#### (1) 金利

2004년 들어 장단기 시장금리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지속으로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내수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인하(8.12일) 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도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지속하였다.

#### (長期市場金利)

장기시장금리는 연초 경기회복 기대감과 이에 따른 주가 상승세 지속,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증가, 美연준의 금리정책기조 변경 가능성<sup>5)</sup> 등의 영향으로 일시 상승하였다.

그러나 2월 이후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약화된 데다,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른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바탕으로 채권매수세가 확대되는 등 수급사정이 호전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특히 3월 중순 이후 미국 장기금리는 경기확장세 지속 및 이에 따른 美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국내 장기금리는 중국의 긴축기조 강화, 고유가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우려, 지속적인 채권수급 호조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미국금리와의 차별화된 움직임(decoupling)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8월 12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표 II-11〉

주요 시장금리 추이  
(월말 기준)

	(연%)				
	2002.12	2003.12	2004.3	6	8
콜(1일)	4.52	3.95	3.74	3.78	3.52
CD(91일)	4.90	4.36	3.90	3.93	3.52
CP(91일, A1)	5.03	4.55	4.12	4.02	3.69
국고채(3년)	5.11	4.82	4.50	4.24	3.56
회사채(3년, AA-)	5.68	5.58	5.30	4.84	4.11

자료 : 한국증권전산

〈그림 II-17〉

주요 장기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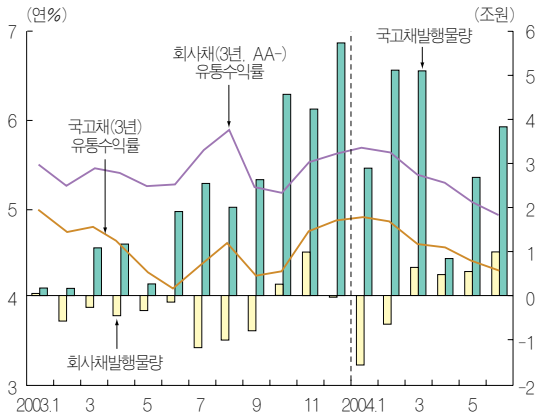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증권전산

5) 美연준은 1월 28일 FOMC 발표문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사용해 온 “상당기간 동안 저금리 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림 II-18〉

회사채·국고채 유통수익률<sup>1)</sup> 및 순발행 추이



주 : 1) 월평균  
자료 : 한국증권전산

〈표 II-12〉

주요 채권발행<sup>1)</sup> 추이

	2002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상반
국 채	15.9	37.5	7.6	29.9	21.2
(국 고 채)	4.7	25.9	4.5	21.4	20.1
회 사 채 <sup>2)</sup>	-8.1	-4.0	-2.1	-1.9	0.3
금 융 채 <sup>3)</sup>	27.4	8.5	6.7	1.8	10.0
A B S <sup>4)</sup>	6.7	-1.9	-1.8	-0.1	-0.6
특 수 채 <sup>5)</sup>	8.4	-27.2	-2.3	-24.9	-17.0
통 안 증 권	5.2	21.2	13.1	8.1	19.9
계	55.5	34.2	21.3	12.9	33.8

주 : 1) 순발행액 기준  
2)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 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촉진 등에 따른 채무조정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3) 산금채, 중금채, 국민은행채, 기타 은행채 등  
4) Secondary CBO, CLO, 매출채권 ABS 등  
5) 예보채, 카드채, 리스채, 할부채, 한전채, 토지채 등

〈표 II-13〉

기관별 보유채권 증감 추이

	연중	2003		2004
		상반	하반	상반
은 행	6.1	9.0	-2.8	-2.5
은 행 신 탁	-8.7	-6.1	-2.6	-2.9
투 신 사	-7.5	-4.0	-3.5	15.9
연 기 금	25.1	12.2	12.9	9.1
보 험 사	15.9	8.5	7.4	4.1

자료 : 증권예탁원

목표 인하의 영향으로 장기금리는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하여 8월말 현재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전년말(4.82%)보다 크게 낮아진 3.56%를 기록하였다.

한편 상반기중 주요 채권의 발행동향을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 대규모 순상환되었으나 국고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발행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국고채는 정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자금의 조기집행과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 등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발행이 크게 늘어났으며 통화안정증권도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이 확대되었다. 반면 카드채는 내수위축과 높은 수준의 신용카드사 연체율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경계심리로 발행이 크게 줄었으며 예보채, ABS 등은 순상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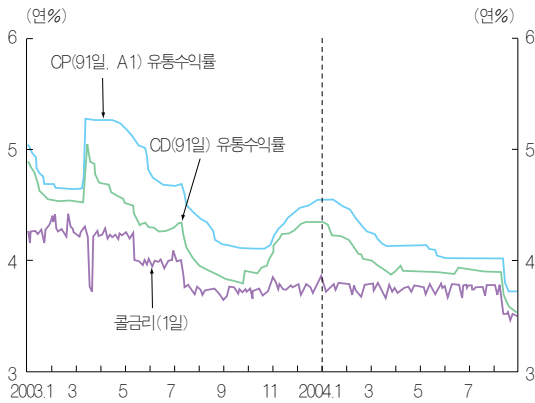
한편 채권수요측면에서는 2004년 들어 수신이 증가세로 돌아선 투신사와 장기채권에의 자금운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연기금 등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은행권은 수신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시장금리 하락과정에서의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었다.

(短期市場金利)

단기시장금리도 연초 이래 장기시장금리 하락, 시중유동성 호조에 따른 단기 금융상품 매입수요 확대 등으로 상당폭 하락한 데 이어 8월의 콜금리 목표인하 이후에는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하였다.

〈그림 II-19〉

주요 단기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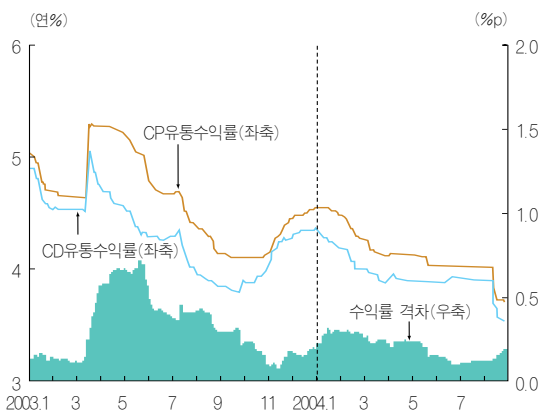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증권전산

단기시장금리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조기집행,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이 투신사 MMF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여 CD(91일) 유통수익률이 전년말의 4.36%에서 3월 23일 3.88%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단기시장금리와 콜금리간의 격차가 과도하게 축소되었다는 인식 등으로 하락세가 멈춘 뒤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8월의 콜금리 목표인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8월말 현재 CD(91일) 유통수익률은 3.52%를 기록하였다.

〈그림 II-20〉

CD 및 CP 유통수익률 격차 추이



자료 : 한국증권전산

한편 CD와 CP 유통수익률간의 격차<sup>6)</sup>는 연초 일시적으로 소폭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단기시장금리의 하향안정세와 함께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전년말의 0.19% 포인트에서 8월말 현재 0.17% 포인트로 축소되었다.

(長短期金利隔差)

장단기금리격차는 장기금리의 큰 폭 하락으로 축소되었다.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과 콜금리(1일)간 격차는 연초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큰 폭의 축소추세를 지속하였으며 국고채(3년)와 CD(91일) 유통수익률간의 격차도 2월말까지 소폭 확대된 이후 점차 축소되었다.

〈그림 II-21〉

장단기금리격차 추이



자료 : 한국증권전산

이는 7월까지 콜금리 목표의 3.75% 수준 유지로 단기금리의 추가 하락이 제약된 가운데 장기금리는 내수회복 지연 우려 및 꾸준한 채권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 평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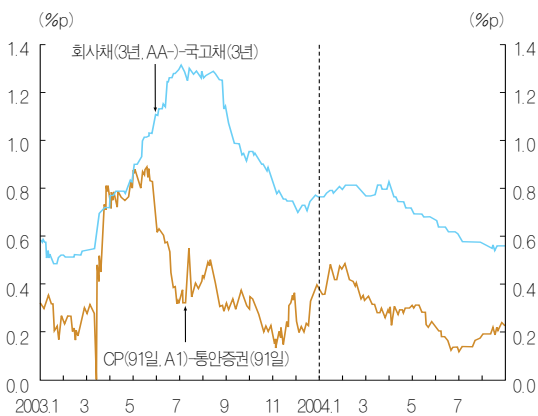
6) CD 발행주체인 은행과 CP 발행주체인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증권사·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간의 신용도 차이를 반영하여 금리격차가 발생한다.

(flattening)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8월 12일 콜금리 목표 인하 이후에도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단기금리보다 커서 장단기금리격차는 더욱 축소되었다.

(리스크 프리미엄)

<그림 II-22>

리스크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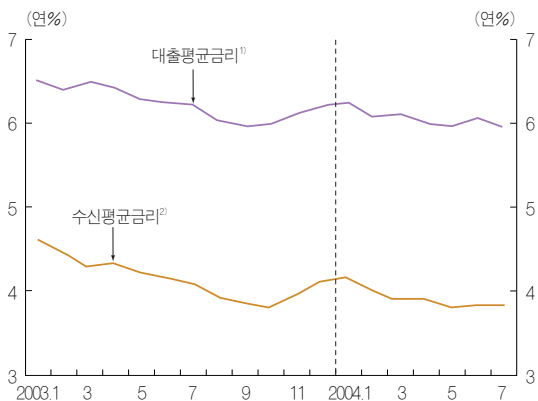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증권전산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간의 수익률격차인 금리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전반적인 금리하락세와 함께 축소추세를 나타내었다.

회사채(3년, AA-)의 국고채(3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연초 신용카드사 관련 불안심리 잔존 등으로 지난해말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신용카드사 문제 개선 등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국고채 수익률의 큰 폭 하락에 따른 상대적 고수익률 추구 경향이 확산되면서 2월 하순 이후 비교적 빠른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말의 0.76% 포인트에서 8월말에는 0.55% 포인트로 축소되었다.

<그림 II-23>

은행 여수신평균금리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주 : 1) 당좌대출, 마이너스 대출 제외  
2)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제외

단기자산인 CP(91일, A1)의 통안증권(91일)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2월 이후 빠른 하락세를 보이며 전년말의 0.37% 포인트에서 6월 29일 0.12% 포인트까지 낮아졌다가 7월 하순 이후 소폭 상승하여 8월말 현재 0.22% 포인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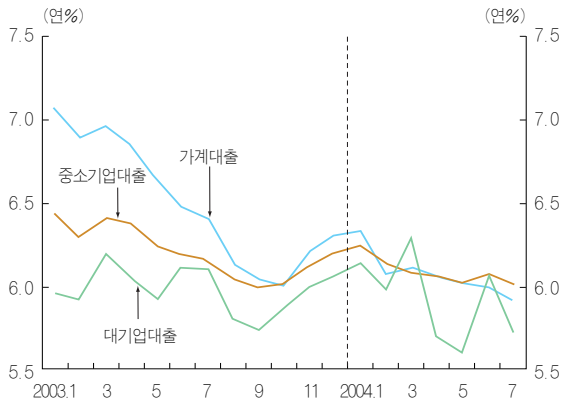
(金融機關 與受信金利)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는 연초 지난해 10월 이후의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2월 이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은행 수신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월초 일부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하여 정기

〈그림 II-24〉

차입주체별 은행 대출평균금리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금리를 인상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금리 하락반전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도 하락하면서 대체로 내림세를 지속하여 7월중 3.84%로 낮아졌다(전년 12월중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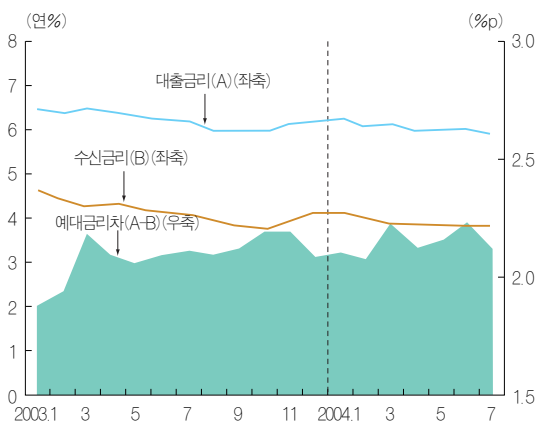
은행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수신금리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7월중 5.96%까지 낮아졌다(전년 12월중 6.20%).

특히 대기업 대출평균금리는 3월중 일부 은행들이 LG카드에 대한 자금지원시 고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보다 일시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이후 수출호조와 투자부진 등에 따른 자금수요 저조를 반영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다만 6월중에는 일부 비우량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반등하였으나 7월중 다시 5.72%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은행의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전년 12월의 2.08% 포인트에서 7월 2.12% 포인트로 소폭 확대되었다.

〈그림 II-25〉

은행 예대금리차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표 II-14〉

주식시장 주요지표 추이

	2002	2003		2004		
		상반	하반	상반	7	8
종합주가지수 <sup>1)</sup>	627.55 (-9.5)	669.93 (6.8)	810.71 (21.0)	785.79 (-3.1)	735.34 (-6.4)	803.57 (9.3)
거래량(만주) <sup>2)</sup>	85,725	60,208	48,243	42,058	35,860	31,547
거래대금(억원) <sup>2)</sup>	30,416	20,182	24,135	25,574	16,090	15,866
코스닥지수 <sup>1)</sup>	443.60 (-38.6)	497.50 (12.2)	448.70 (-9.8)	385.18 (-14.2)	331.21 (-14.0)	355.66 (7.4)
거래량(만주) <sup>2)</sup>	32,042	41,049	40,600	32,953	26,289	25,616
거래대금(억원) <sup>2)</sup>	12,053	11,139	10,434	7,605	4,508	4,786

주 : 1) 기말 기준, ( ) 내는 전기말대비 등락률(%), 단 7, 8월은 전월대비 등락률(%)

2) 일평균

자료 : 한국증권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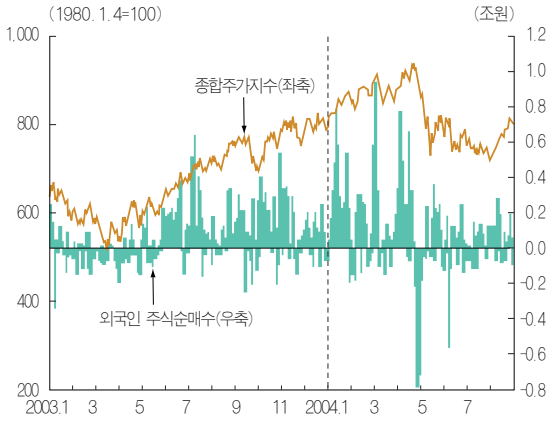
(2) 株價

(綜合株價指數)

2004년 들어 종합주가지수는 4월 중순까지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이후 5월 중반까지 급락하였으며 8월 초까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저가 매수세의 유입 등으로 반등하였으며 특히 8월 12일 콜금리 목표인하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다.

〈그림 II-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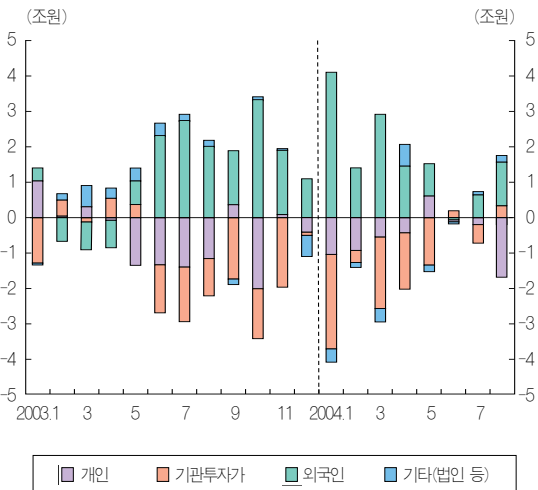
종합주가지수와 외국인 주식순매수 추이



자료 : 한국증권전산

〈그림 II-27〉

투자자별 거래소주식 순매수 추이



자료 : 한국증권전산

종합주가지수는 2004년 들어 지난해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주가 상승, 국내 기업 실적 호조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3월 중순에는 미국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일시 반락하기도 하였으나 곧 오름세를 회복하여 4월 23일에는 전년말 대비 15.5% 오른 936.06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중국정부가 경기과열 억제 의지를 표명<sup>7)</sup>한 가운데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내수회복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대규모 순매수세를 지속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실현 및 단기급등에 따른 경계심리 등으로 4월 하순 이후 대규모로 순매도하면서 주가는 5월 17일 728.98까지 떨어졌다. 이후 주가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전환과 함께 일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8월 2일 연중 최저 수준인 719.59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의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세의 지속으로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특히 8월 12일 콜금리 목표 인하 등에 힘입어 8월말 현재 803.57로 상당폭 반등하였다. 이는 전년말 대비 0.9% 하락한 수준이다.

주식거래 동향을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출호조 지속, 기업실적 개선 등을 배경으로 연초부터 대규모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순매수 규모를 점차 줄이다가 중국의 긴축강화 시사 및 美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등으로

7) 4월 28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경제의 과도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II-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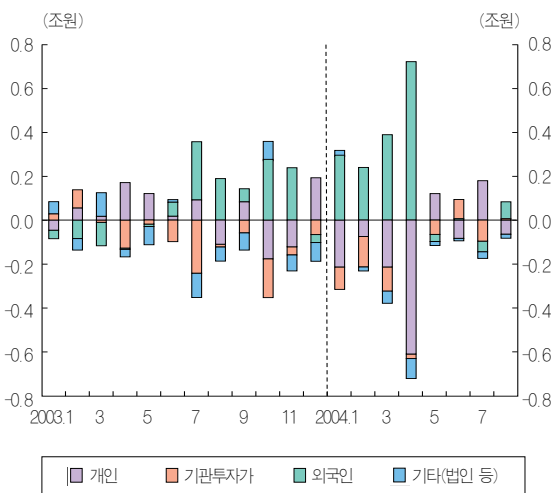
코스닥지수와 외국인 순매수 추이



자료 : 한국증권전산

〈그림 II-29〉

투자자별 코스닥주식 순매수 추이



자료 : 한국증권전산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sup>8)</sup> 성격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규모 순매도로 돌아섰으며 5월 중순 이후에는 순매수세로 다시 돌아섰으나 그 규모는 현저히 축소되었다. 한편 국내 기관투자가 및 개인은 전반적으로 순매도세를 유지하였다.

(코스닥指數)

코스닥지수는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는 달리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3월 하순 이후 일시 상승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내수회복 지연, 주요 인터넷 기업의 실적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8월 들어 소폭 반등하여 8월말 현재 전년말대비 20.7% 떨어진 355.66을 기록하였다.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별 거래동향도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하였다.

8) 이는 저금리 약세통화를 단기로 차입하여 고금리 강세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되 환율 및 금리 변동위험을 헤지(hedge)하지 않는 투기적 거래이다. 그동안 미국의 저금리 및 달러화 약세를 배경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국 금융시장 등에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으나 4월 들어 미국의 조기금리인상 및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면서 일부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量的指標

### (1) 通貨

〈표 II-15〉

통화증가율 추이<sup>1)</sup>  
(평잔 기준, 전년동월대비)

	2002. 12	2003. 12	2004. 3	6	7
M3	13.3 (12.9)	5.0 (8.8)	5.3	6.0	7.9p (5.5p)
M2	14.1 (11.5)	3.0 (7.9)	2.7	4.4	4.6 (3.4)
M1	15.2 (22.5)	5.4 (6.9)	8.3	9.2	10.2 (8.6)
본원통화	9.7 (14.3)	6.6 (6.5)	7.2	4.3	3.2 (5.3)

주 : 1) ( )내는 연중, 단 2004년 7월은 1~7월중

2004년 들어 통화증가율은 지난해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특히 협의의 지표인 M1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 (通貨指標)

7월중 M3(총유동성) 증가율(평잔기준)은 지난해 12월의 5.0%에서 5.9%로 높아졌다. M3 증가율은 1월중 4.9%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월부터는 재정 조기집행과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을 배경으로 투신사 등의 수신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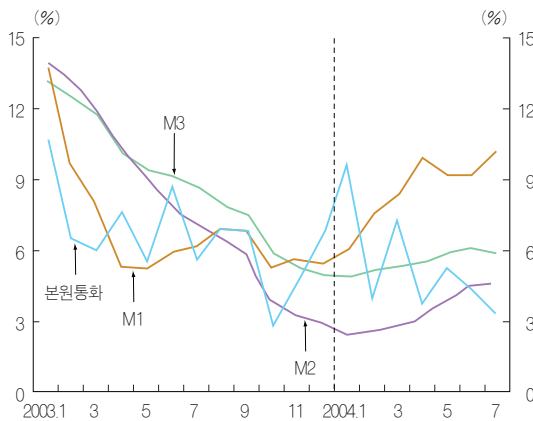
M2(광의 통화) 증가율도 M3 증가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 1월중 2.4%로 하락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7월에는 4.6%까지 높아졌으나 은행의 예금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여타 통화지표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단기 유동성 지표인 M1(협의 통화) 증가율은 연초부터 정부와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확대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기업의 여유자금 보유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7월에 10.2%까지 상승하였다.

본원통화는 설자금수요 등으로 1월중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내수부진에 따른 현금통화수요 감소 등으로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II-30〉

통화증가율 추이  
(평잔 기준, 전년동월대비)





### (部門別 通貨供給)

〈표 II-16〉

부문별 M3 공급내역 추이  
(말잔기준 증감액)

(조원)

	2002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상반
M3 증감액	138.0	54.0	23.4	30.6	46.5
정부 부문	2.5	11.2	1.5	9.7	13.4
공공 부문	-7.0	-19.7	-5.4	-14.2	-10.8
민간 부문	149.1	60.0	37.4	22.6	19.9
(대출)	115.4	76.6	46.3	30.3	29.5
(유가증권) <sup>1)</sup>	13.8	-18.1	-8.6	-9.4	-16.4
(외화신용) <sup>2)</sup>	17.5	2.9	2.0	0.9	1.9
해외 부문	-10.4	31.8	2.5	29.3	18.2
기타 부문	3.9	-29.3	-12.5	-16.8	6.1

주 : 1) 회사채, CP 등  
2) 외화대출, 외화지급보증대지급 등

M3를 기준으로 상반기중 부문별 통화공급 내역을 보면 해외부문 및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을 통한 공급은 축소되었다.

해외부문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정부부문은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공급규모가 각각 전년동기중 2.5조원 및 1.5조원에서 18.2조원 및 13.4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민간부문은 내수부진의 영향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차입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공급규모가 전년동기의 37.4조원에서 19.9조원으로 축소되었다.

### (2) 金融機關 受信

〈표 II-17〉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증감액 기준)

(조원)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I	II	7	8
예금은행 <sup>1)</sup>	39.9	23.0	16.9	2.6	4.6	-6.5	-3.9
실세요구불예금	1.4	-2.8	4.1	1.2	-1.9	-0.9	-2.2
저축성예금	29.3	16.7	12.7	-4.5	0.6	-3.5	-0.5
(정기예금)	14.7	8.8	5.9	1.5	1.2	-1.2	2.8
(수시입출식)	15.7	7.3	8.4	-5.2	-1.8	-2.6	-3.3
(MMDA)	14.6	11.5	3.1	-1.1	-3.0	-2.4	-0.9
CD + RP	9.3	9.7	-0.3	5.5	6.0	-2.1	-1.2
표지어음	-0.2	-0.6	0.4	0.3	-0.1	-0.1	0.0
은행신탁계정	-15.7	-9.3	-6.4	-5.5	-0.3	-1.0	-0.7
특정금전	-6.7	-4.1	-2.6	-3.1	-0.8	-0.4	-0.1
투자신탁회사	-28.6	-17.1	-11.5	17.0	-1.4	6.8	3.9
단기채권형	-3.5	0.8	-4.3	-0.2	1.3	2.9	2.6
장기채권형	-3.7	1.6	-5.3	0.4	2.4	1.2	1.3
M M F	-7.2	-12.3	5.1	14.6	-3.6	2.1	0.5
주식형	-1.0	0.9	-1.9	-0.5	-0.5	-0.4	0.0
혼합형	-13.1	-8.1	-5.0	2.7	-1.9	-0.7	-1.4

주 : 1) 정부예치금 포함, 산업은행 수신 제외  
자료 : 업종별 협회

2004년 들어 금융기관 수신동향을 보면 투신사 수신이 지난해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예금은행(은행 고유계정) 수신은 지난해의 증가에서 소폭 감소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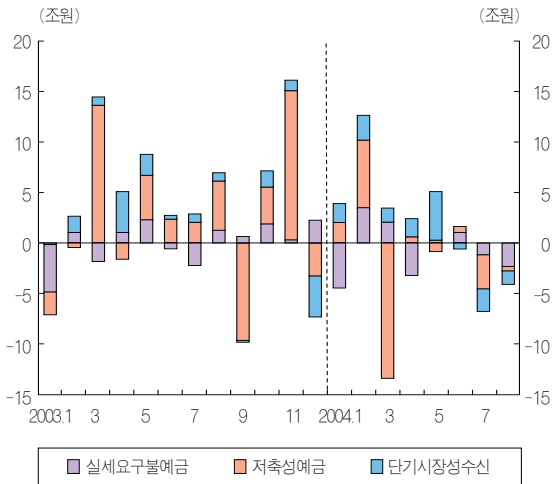
### (預金銀行)

2004년 들어 예금은행 수신은 정부부문 및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이탈 등으로 1~8월중 3.3조원 감소하였다.

수신형태별로 보면 요구불예금이 3.8조원 감소하였고 저축성예금도 예금금리 인하, MMDA 등 수시입출식예금의 투신사 MMF로의 이동 등으로 7.9조원 감소하였다. 반면 CD, RP 등 단기시장성 수신은 예금금리 인하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은행들도 원화유동성비율 제고 등을 위해 CD 등

〈그림 II-31〉

예금은행 상품별 수신 추이  
(증감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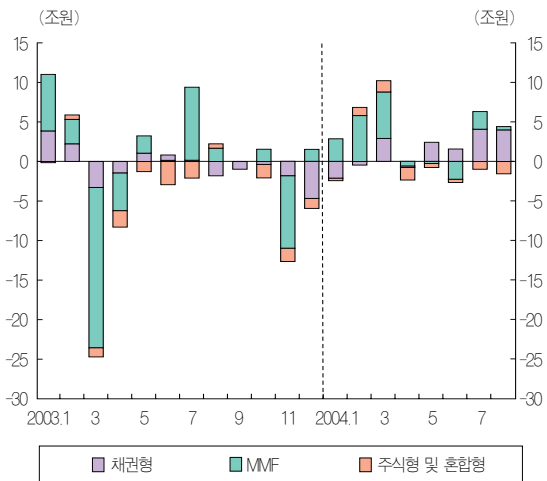


의 발행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은행수신은 1월중 설자금 수요, 부가세 납부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월 들어 정부 및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설 자금 환류 등의 영향으로 단기수신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3월 들어서는 주택 청약증거금 유입 등에 따른 요구불예금 호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 정기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4월에도 소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5월 들어 정기예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CD 등 단기시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수신이 크게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후 6월에도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수시입출식예금 호조 등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7월 이후에는 부가세 납입과 콜금리 목표 인하 등에 따른 시장금리의 하락세 지속으로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II-32〉

투자신탁회사 상품별 수신 추이  
(증감액 기준)



자료 : 투자신탁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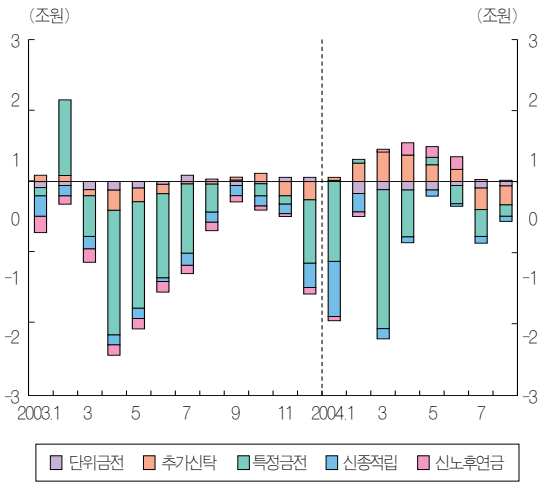
(投資信託會社)

지난해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악화 등에 따른 카드채 부실 우려로 28.6조원 감소하였던 투신사 수신은 신용카드사 문제가 점차 개선된 가운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MMF, 채권형 투자신탁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1~8월중 26.3조원 증가하였다.

투신사 수신은 연초 지난해말 결제 수요 등으로 인출되었던 자금이 MMF를 중심으로 재유입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시장금리 하락 및 은행 예금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시중 여유자금과 은행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MMF 등으로 대거 유입되고 그 동안 부진하였던 채권형 수익증권도 호조를 보이면서 3월까지의 수신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었다. 다만 2/4분기 들어서는 장단기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둔화된 가운데 4월중

〈그림 II-33〉

은행신탁 상품별 수신 추이  
(증감액 기준)



부가가치세 납부 및 6월중 반기결산 등의 영향으로 MMF 자금이 이탈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다. 7월 이후에는 시장금리의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 채권형수익증권과 MMF가 크게 늘면서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한편 1~8월중 주식형 투자신탁 및 혼합형 투자신탁은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銀行信託)

은행 신탁계정은 추가금전신탁, 신노후연금신탁 등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특정금전신탁이 크게 줄고 신규취급이 중단된 신종적립신탁 등의 만기도래자금도 계속 인출되면서 1~8월중 7.7조 원 감소하여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표 II-18〉

부문별 은행대출<sup>1)</sup> 추이  
(증감액 기준)

	2002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I	II	7	8
대 기업	0.1	-4.3	-0.5	-3.8	1.2	-2.3	0.6	0.2
중소기업	37.1	35.0	26.6	8.4	7.0	4.1	2.0	-0.6
가 계	61.6	30.6	13.9	16.7	5.1	6.3	1.2	3.0
기 타 <sup>2)</sup>	-0.2	0.9	1.6	-0.7	1.1	1.0	-0.7	-0.3
합 계	98.6	62.2	41.6	20.7	14.5	9.1	3.2	2.4

주 : 1) 신탁계정(CP할인 제외) 포함  
2) 공공 및 기타법인에 대한 대출

(3) 企業資金 및 家計貸出

2004년 들어 기업자금사정은 대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호조와 대규모 설비투자 유보 등으로 대체로 원활하였다. 그러나 신용도가 높지 않은 내수위주 소규모기업은 내수위축과 금융기관의 신용차별화 경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의 외부자금조달을 경로별로 보면 은행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직접금융시장에서는 순상환 추세에서 벗어났으나 조달규모는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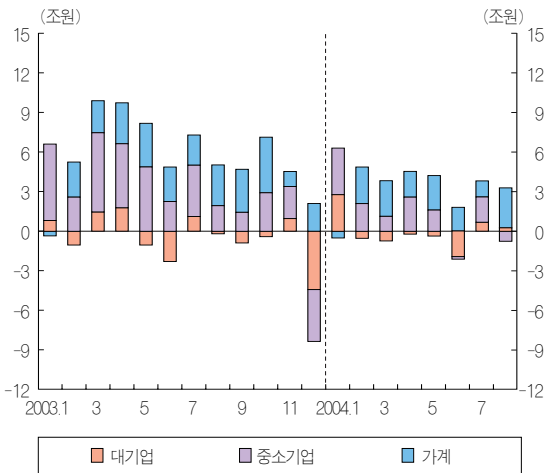
(銀行貸出)

1~8월중 은행대출(신탁계정 포함)은 29.1조원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은 수출호조에 따른 풍부한 현금유동성 확보,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그림 II-34〉

부문별 은행대출 추이  
(증감액 기준)



〈표 II-19〉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실적<sup>1)</sup> 추이  
(월말 기준)

연월	3	4	5	6	7	8
2004.3	353	3,639	7,644	11,235	14,276	17,397

주 : 1) 예금은행 취급 잔액 기준,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양도의액 포함

〈표 II-20〉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증감액 기준)

종류	2003			2004			
	연중	상반	하반	I	II	7	8
회사채발행(순) <sup>1)</sup>	-4.0 (-1.8)	-2.1 (0.4)	-2.0 (-2.2)	-1.7 (-1.7)	1.9 (2.4)	-1.2 (-1.2)	-1.7 (-0.7)
CP 발행(순) <sup>2)</sup>	-22.6	-11.0	-11.6	4.4	-3.7	1.0	-0.1
주식발행	2.8	0.9	1.8	0.5	1.1	0.5	0.6
직접금융계	-23.9	-12.2	-11.7	3.3	-0.7	0.4	-1.3

주 : 1)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 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채무조정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 )내는 PrimaryCBO 편입분,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등 제외  
2) 증권사, 종금사, 은행신탁의 CP할인액 기준  
3)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자금조달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제외. 납입일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업종별 협회

따른 설비투자 유보 등으로 차입수요가 둔화되어 1~8월중 0.2조원 감소하는 순상환추세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었다. 중소기업대출은 12.5조원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좋아 차입수요가 크지 않았고, 내수 중소기업의 경우는 차입수요는 있었으나 은행들이 대출 부실화 우려 등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도 1~8월중 15.7조원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계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통한 차입수요가 둔화되고 은행들도 가계대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3월 25일부터 9개 금융기관(7개 은행, 2개 생보사)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8월 말 현재 1.7조원의 취급실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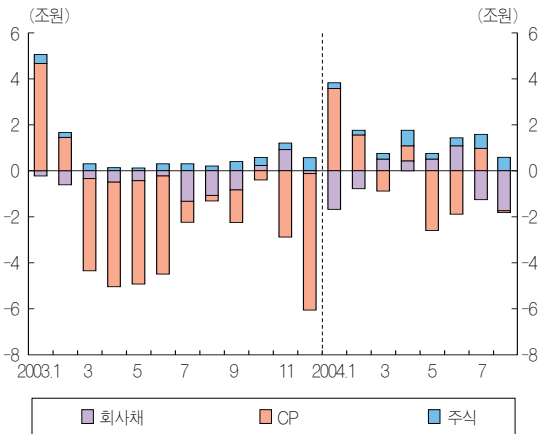
(直接金融)

기업들이 지난해에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순상환하였으나 2004년 들어서는 순조달하였다. 다만 자금조달규모가 1~8월중 1.7조원에 그쳐 직접금융시장은 여전히 활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회사채는 1~8월중 2.6조원 순상환되어 2002년 이후의 순상환 추세를 이어갔다. 연초에는 신용카드사 관련 불안심리가 잔존한 가운데 대기업의 수출호조에 따른 자금사정 여유 등으로 큰 폭의 순상환 기조가 이어졌다. 그러나 3월 이후 소폭의 순발행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국고채와의 금리격차 확대에 회사채 매입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기업들도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세

<그림 II-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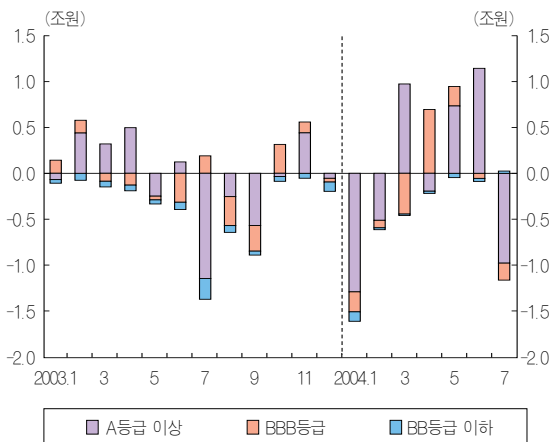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증감액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업종별 협회

<그림 II-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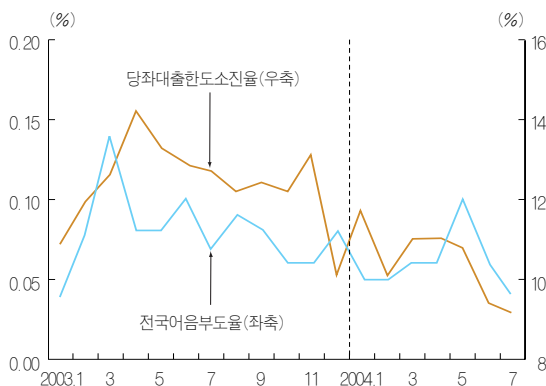
신용등급별 회사채 순발행<sup>1)</sup> 추이  
(증감액 기준)



주 : 1) 일반공모 회사채 기준

<그림 II-37>

전국어음부도율<sup>1)</sup> 및 당좌대출한도소진율 추이



주 : 1) 전자결제액 조정후

전환에 따른 향후 국내 장기금리의 동반상승 우려와 함께 부채구조의 장기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린 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7월 이후 기업의 투자자금수요가 미미한 가운데 만기도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다시 순상환으로 전환되었다.

신용등급별(일반공모 회사채 기준)로는 신용차별화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A등급 회사채의 발행비중(총액 기준)이 소폭 상승(2003년 68.7% → 2004년 1~7월중 69.7%)한 반면 BBB등급 이하의 발행비중은 하락하였다. 특히 투기등급인 BB등급 이하는 7월을 제외하고는 순상환추세를 지속하였다.

1~8월중 CP는 1.7조원 순발행되었다. CP는 연초 전년말 결산을 앞두고 기업들이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대규모로 상환하였던 부분이 재발행되면서 순발행을 보였으나 3월 이후에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자금수요 저조, 회사채 발행을 통한 CP 상환 등으로 대체로 순상환 추세를 보였다.

1~8월중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시장별로는 거래소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1.4조원이었으며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2조원이었다.

(企業資金事情)

1~7월중 기업자금사정은 풍부한 시중유동성 사정을 반영하여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수위주의 소규모 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음부도율(전자결제액 조정후)은 5월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지원용 Primary CBO가

〈표 II-21〉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sup>1)</sup> 추이

(%)

	2002. 12	2003. 12	2004					
			1	2	3	4	5	6p
기업대출	1.8	1.9	2.4	2.5	2.4	2.6	2.8	2.0
대기업	1.1	0.6	0.2	0.3	0.3	0.4	0.4	0.4
중소기업 (개인사업)	2.0	2.1	2.8	2.9	2.8	3.0	3.2	2.3
(개인사업)	2.1	2.1	3.1	3.1	2.9	3.1	3.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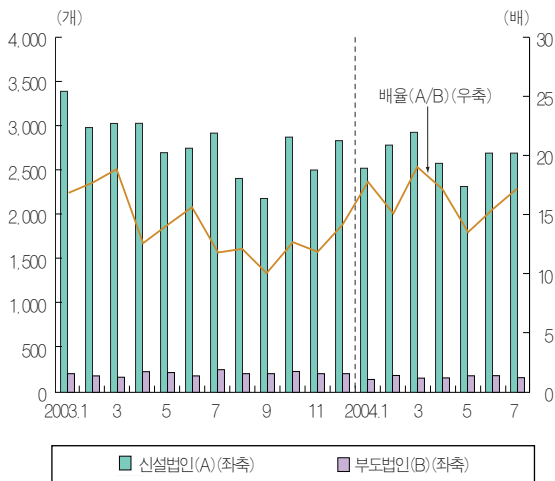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부도 처리되면서 일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출한도소진율도 지난해에 이어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업대출 연체율은 내수부진 지속,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내수위주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II-38〉

8대도시<sup>1)</sup>의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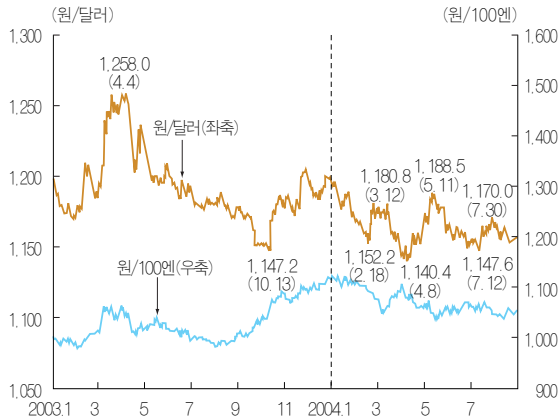
주 :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울산

한편 서울을 비롯한 8대 주요 도시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은 금년 들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는 신설법인수가 늘어나고 부도법인수가 줄어들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5. 外換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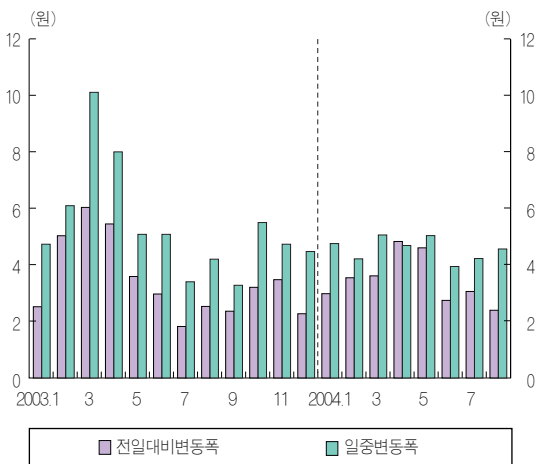
〈그림 II-39〉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증가 기준)



〈그림 II-40〉

원/달러 환율 변동폭 추이



〈표 II-22〉

외환보유액 추이  
(말잔 기준)

	(억달러)					
	2001	2002	2003	2004		
외환보유액	1,028.2	1,214.1	1,553.5	1,635.6	1,670.3	1,704.9

### (換率)

2004년 들어 원화의 對美달러 환율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환율은 G7회의(2.6~7일)를 전후한 아시아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 우려 등으로 연초부터 하락하여 전년말의 1,192.6원에서 2월 18일 1,152.2원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3월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1,180.8원까지 급등하였다가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지속 등으로 다시 하락하여 4월 8일 1,140.4원까지 낮아졌다. 이후 美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5월 11일 1,188.5원까지 올랐으나 수출호조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내림세로 반전하여 7월 12일 1,147.6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엔/달러환율 상승, 국제유가 급등, 국내경기 회복지연 우려 등으로 반등하여 8월말 현재 1,153.0원을 기록하였다. 원화는 2004년 들어 美달러화에 대해 3.4% 절상되었다.

1~8월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지난해의 5.4원에서 4.5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전일대비 변동폭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4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원화의 對日엔화 환율은 3월말까지 1,100원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4월 중순 이후 1,060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8월말 현재로는 100엔당 1,050.6원으로 전년말대비 6.1% 절상되었다.



(外換保有額)

〈표 II-23〉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변화 추이<sup>1)</sup>

	S&P	Moody's	Fitch IBCA
1997	A+(10.24) A-(11.25) BBB-(12.10) B+(12.22)	A3(11.27) Baa1(12.10) Ba1(12.21)	A+(11.18) A(12.3) BBB-(12.11) B-(12.23)
1998	BB+(2.17)	-	BB+(2.2)
1999	BBB-(1.25) BBB(11.11)	Baa3(2.12) Baa2(12.16)	BBB-(1.19) BBB(6.24)
2000	-	-	BBB+(3.30)
2001	BBB+(11.13)	Baa2(11.30)	-
2002	A-(7.24) 전망 : S) <sup>2)</sup>	A3(3.28) 전망상향조정 (S→P, 11.15) <sup>2)</sup>	A(6.27) 전망 : S) <sup>2)</sup>
2003	-	전망하향조정 (P→N, 2.11) <sup>2)</sup>	-
2004		전망하향조정 (P→N, 6.11) <sup>2)</sup>	

주 : 1) ( )내는 발표일자  
2) P(Positive), S(Stable), N(Negative)

외환보유액은 8월말 현재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외환의 공급우위와 보유외환 운용수익 증대 등으로 전년말의 1,553.5억달러에서 1,704.9억달러로 151.4억달러 증가하였다.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내역은 유가증권 1,433.7억달러(84.1%), 예치금 262.8억달러(15.4%), IMF포지션 7.4억달러(0.4%) 등으로 유가증권이 대종을 점유하고 있다.

(海外借入與件)

2004년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변화가 없었다. 다만 Moody's社は 북핵관련 긴장 완화를 감안하여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6.11일, Negative → Stable)하였다.

〈표 II-24〉

외평채 및 국내은행 단기차입금 가산금리 추이

	2003.12	2004.3	6	8
외평채(2008) <sup>1)</sup>	45	48	39	25
단기차입금 <sup>2)</sup>	18	16	11	11

주 : 1) 미정부채 기준 가산금리(Spread), 기말 기준  
2) Libor기준 가산금리(Spread), 기간 평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2008년 만기기준)는 美연준의 금리인상 예상에 따른 신흥시장 국채권수요 감소와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4월말에는 전년말의 45bp에서 56bp 까지 확대되었다가 Moody's社の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8월말에는 25bp로 낮아졌다.